

역사문화 탐방(진시황을 만나다)

(21기 동계 해외탐방 보고서)

2018년 11월 07일 수요일 새벽에 지방에서 인천공항 가는 길은 무척이나 어려운 발걸음이었다. 혹여나 잠들까봐 날밤을 새고 대전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에 새벽 3시 20분차에 몸을 실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면서 기본적인 건설인 자격은 갖추었으나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싶고, 동업계 학위를 받음으로써 현재 자격등급의 승급을 위해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학하여 3학기 수업을 진행되는 중이었다.

늦은 나이로 학업을 진행하다보니 어린 학우들과 어울릴 기회는 많았지만 어쩐지 쉽게 다가서지는 못하였었다.

그러던 중 21기 동계 해외탐방이라는 공지사항을 접하고 미묘한 관심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사고가 특이해서인지 정복자나 난세의 영웅을 좋아한다. 그런 인물들 중에는 삼국지의 조조도 있고, 독일의 히틀러나 나폴레옹도 있다. 그중에 제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만리장성과 같은 무모한 성과를 이루어낸 진의 최초황제 영정이었다.

또한 모임에 어울리지는 못하였지만, 학우들과 떠나는 해외여행을 통하여 마지막 남은 대학의 추억을 만들고자 용기 내어 신청을 하게 되었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다가왔다. 밤 잠을 설치며 도착한



서 동계 해외탐방 프랭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일행들은 질서정연하게 출국 수속을 마치고, 중국 시안(西安)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랐다. 해외여행의 경험이 많지만, 나에게 학우들과 함께 하는 여행인지라 무척 설렘

과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 1일차 (한양릉 박물관 탐방)

우리를 실은 비행기는 중국 산시성(陝西省)의 성도(省都) 시안(西安)에 있는 셴양(咸陽)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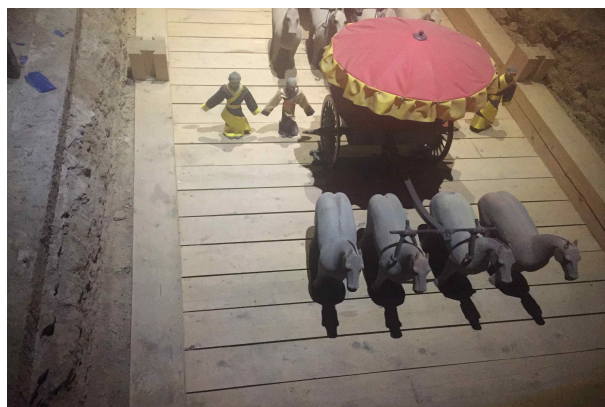
도착후 시안에서 처음으로 들린 곳이 전한의 4대 임금인 경제의 무덤인 한양릉이었다. 한양릉은 전한 시대 임금인 한경제의 무덤으로 중국정부가 지정한 국가 문화재란다.



한양릉은 전한시대 4대 임금인 경제(景帝)의 무덤으로 경제는 BC 188에서 출생하여 BC144까지 살았다. 황제로서의 재임기간은 17년간이었으며 재임기간 중에 훈족과 가옥들의 결혼을 통해 화평을 도모하였으며 세금감면 등을 통해 당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 황제라 한다. 내가 이번 학기에 수강중인 중국역사의 이해 과목에서 학습한바로는 중국을 통일한 한고조 유방 이후 실질적으로 한나라를 통일 국가의 반열에 오른 황제라 배웠다.



한양릉에는 한경제와 그의 왕비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었다. 피라미드 형식으로 된 대규모의 릉은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왕릉보다 크고 웅장하였다.



중국 황제의 무덤으로 피라미드 형식을 갖춘 것은 주로 한, 당, 송, 서하 시대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시안에 38개가 있으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형식보다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피라미드와 유사하다고 한다.

시안에 있는 피라미드의 존재는 1947년 미 공군 조종사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사진이 게재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고 한다. 지하릉은 많은 유물이 산재해 있었다. 토기부터 순장되었던 동물 및 사람 형태의 토기까지 당시 군주의 막강했던 권력을 상징해 주는 듯 했다. 한양릉의 입구에서 가이드로부터 한나라의 역사와 한양릉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을 경청하는 일행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보였다. 약간의 보슬비가 내렸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서 이런 것이 관광이 아닌 체험학습이라는 것을 느꼈다.

@ 1일차 (도자기 빚기 체험)



한양릉을 뒤로하고 우리는 근처의 다음 목적지인 도자기 빚기 체험을 위해 이동하였다. 체험 행사의 강사님의 말씀을 인솔 가이드가 통역하며 우리나라 고령토와 같은 찰흙으로 거푸집처럼 모형을 만드는 틀에 토기를 빚는 학습을 하였다. 모두들 열심히 만드는 모습이였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간관계상 완성된 작품을 구워보지는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이어 탁본을 뜨는 견학에서는 와당을 갖고 체험하였다. 와당에 젖은 종이를 입히고 나무망치로 구석구석 잘 편후 먹물을 이용하여 탁본을 떴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탁본 뜨는 방식이 잘못이었고 여기서 체험한 방식이 탁본을 뜨는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에 국내에서 관심 있는 비문이나 기타 탁본이 필요할 때 오늘 배운 방법으로 탁본을 직접 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교육장에서 모두 열심히 체험학습을 하였고 각자의 탁본 작품을 인솔하신 교수님께서 교수님 사비로 각 개인이 소장할수 있도록 코팅을 해주셨다. 코팅과정에서 기계의 불량으로 잘못된 작품이 나올때는 “코팅기계가 중국산이라 문제가 있다”는 우스개 같은 농담도 하면서 좋은 체험이 되었다고 모두가 자평했다.

@ 2일차 (화청지)

전날 여정으로 무거운 몸들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갔으나 아침에는 모두가 씩씩한 모습으로 집결하는 것을 보니 체험 학습에 대한 높은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2일차 우리가 방문한 첫 장소는 화청츠(华清池)였다. 화청지는 중국 섬서성(陕西省) 서안시(西安市)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여산(驪山)에 있는 온천지다. 유적의 발굴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곳의 온천을 이용한 것은 약 6,000년 전부터라고 한다. 그러다가 약 3,000년 전, 서주(西周)의 유왕(幽



에서 목욕하니 온천물은 매끄러이 고운 살갗 씻었네'라고 노래하였다. 이 구절 외에도 화청지는 백거이의 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만큼 현종과 양귀비는 이곳에 자주 발걸음 하였다. 우리는 화청지의 입구에서 프랭카드를 들고 당당하게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화청지 안으로 들어서서 모두 모여 가이드의 항일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팔로군과 당현종, 양귀비의 설명을 상당시간 경청한 후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눈 연화탕(蓮花湯)이나 양귀비 전용 욕실인 해당탕(海棠湯) 등을 견학하였다. 해당화의 모양을 닮아 이름 붙여진 해당탕은 양귀비 전용 욕탕답게 귀비지(貴妃池), 부용탕(芙蓉湯)이라는 별칭이 있다. 이밖에 태자탕(太子湯), 관리들의 욕실이라는 상식탕(尚食湯)도 있다. 후대에 만들어진 양귀비상이나 두 사람의 침실이었던 비상전(飛霞殿)도 볼만하다. 고대부터 수려한 풍경과 질 좋은 온천수로 유명했던 장소이니 당 현종과 양귀비의 러브 스토리에 관심이 없다 해도 충분히 둘러볼 만하다. 지금도 온천이 샘솟고 있어 김으로 자욱하며, 상점에서 판매하는 식음용 온천수는 인기가 많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절세가인이라는 약귀비가 상당히 볼륨 있는 몸매로 표현되어있었으며 머리모양이

王)이 이곳에 궁을 지으면서 역대 왕실의 보양지로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진나라(秦) 시황제(始皇帝), 한나라(漢) 무제(武帝) 등 여러 황제들도 별궁을 두고 이용했다고 한다.

특히 화청지는 당(唐)나라 현종(玄宗)과 양귀비가 생활했다는 당나라 왕실 원

림으로 유명하다. 화청지

라는 이름도 당 현종이 이

곳에 궁을 만들어 화청궁

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서 유래한다. 현종은 이곳

에서 양귀비와 함께 겨울

을 지냈다고 한다. 백거이

의 <장한가(長恨歌)>에도

화청지가 등장하는데 '봄

날 쌀쌀한데 여산 화청궁

일본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임신한 일본여자를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자 가이드는 당나라시절 일본과의 교역이 많았으며 당시 당나라의 문물이 일본으로 흘러가 지금의 일본 문화를 이루었으니 당시 당나라 여자의 헤어스타일이 일본문화로 발전한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하루에 9번 10번씩 목욕을 했던 양귀비는 목욕을 그렇게 많이 했던 이유가 체취가 심해서였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모두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 2일차 (병마용갱)



다시 우리는 버스에 승차하여 가장 고대하던 진시황의 지하궁전인 병마용갱으로 향하였다. 도착하여 병마용갱의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우리는 수많은 관람객과 거대한 진시황의 동상 그리고 외관에 압도당하는 듯하였다.

중국 산시성[陝西省] 린통현[臨潼縣]에 있는 진시황릉원 동쪽 담에서 1km 떨어진 병마도용을 수장한 지하 갱도로서 1974년 이래 발굴이 시작되어 현재 총면적 25,380㎡에 달하는 4개의 갱이 발굴되었으나 그 중 4호갱은 완성되기 전에 폐기된 빈 갱도였다고 한다.



1호갱은 길이 210m, 너비 60m, 깊이 4.5~6.5m의 총면적 12,000㎡로서, 본래 이 갱 위에는 길이 210m, 넓이 9칸의 회랑식 건축이 있었으나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매장된 전체 도용은 약 6,000개로 추정되며, 도용의 크기는 1.75~1.86m, 도마용은 높이 1.5m, 길이 2m의 실물대이며, 갑옷을 입고 무장한 무사의 엄격한 표정이 모두 상이하다.

1호갱의 동북에 위치한 약 6,000㎡의 2호갱 역시 부분적으로 발굴되어 다량의 목제 전차와 이를 끄는 마용 356건, 기병용 116건, 안마 116건, 보병용 562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설명에 아직도 무궁무진한 출토 결과가 기대되었다..

완전 발굴된 520㎡의 3호갱은 지휘부로 추정되는데, 장군의 것으로 보이는 채색된 전차 1량과 갑옷 입은 보병용 64건, 마용 4건이 출토되었다고 설명을 들었다,

이 밖에도 진시황릉 서북측에서 동마용과 동용이 딸린 대형 동전차가 1대 발견되었으니 이는 세계의 8대 경이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이 병마용들 하나하나와 같이 모두 훌륭한 예술품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이 병마용들은 진시황 친위군단의 강력한 위용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나라의 군사편제·갑옷·무기 등의 연구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일부 도용에서 확인되는 북방 민족의 두발형식은 친위군단의 민족적 구성을 짐작하게 하였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병마용갱 모형을 파는 상인들이 즐비하였다. 나는 가이드의 설명대로 동료 학우와 함께 정식 매장에서 병마용갱 모형을 구입했다. 중국 위원화 599원이니 상당한 금액이었다. 이를 들고 나오니 위에서 이야기한 노점상이 또 유혹하였고 가격의 차이가 심하여 하나더 구입하게 되었다.

이후 실제 진시황이 잠들어 있다는 진시황릉으로 이동하여 석양이 지는 멋진 풍광아래에서 학우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2일차 해외탐방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돌아오는 차량속에서 거대한 진시황제 무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 70만명의 사람들이 37년간 작업을 하였다하니 그 처참했을 운명을 생각하며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 3일차 (성서역사박물관 대안탐)

다음날 아침 대안탐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다.



먼저 성서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성서박물관은 주나라 문왕부터 한나라, 당나라까지 13개의 왕조를 거친 역사적인 도시유물을 전시한 곳이다.

역사박물관에는 유구한 역사문화와 고대문명을 전시하고 있는 종합적인 역사박물관이었다. 박물관의 건축 외관은 축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한 대칭 구조를 이루어, 중앙에는 전당(殿堂)

이 있고 네 모퉁이에는 높은 누각이 배치되어 성당(盛唐) 풍의 건축양식을 계승하였다. 박물관에 소장된 문물 가운데 상나라와 주나라의 청동기, 각 왕조의 토용(土俑), 한나라와 당나라의

금기(金器)와 은기(銀器), 당나라 고분벽화 등이 돋보인다.

또한 이슬람 문명과의 연계된 유물이 많아 이곳이 실크로드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었다.

워낙 넓은 공간이라 이곳을 견학하고 체험하는데 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대안탑은 당 고종이 어려서 여원 어머니 문덕황후를 기리기 위해 648년에 자은사(慈恩寺)를 건립하였었고. 현장법사가 645년 인도에서 가져온 산스크리트 경전을 번역하고 보관하기 위해 경내에 대안탑(大雁塔.다옌타)을 비롯해 다양한 건물이 세워다 한다. 그러나 당 말기, 전쟁을 겪으며 자은사(츠엔쓰)는 심하게 훼손되었고 오로지 다옌타만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빈 절터를 지키게 되었다 한다.

높이 64m의 탑이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중국 정부의 주도로 복원사업이 시작됐으나 지나치게 화려해 고풍스런 멋이 나지 않는 자은사를 찾는 관광객은 많별로 없지만 오래된 건축물의 풍취가 감도는 다옌타(대안탑)를 찾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4각 7층의 누각식 전탑인 다옌타는 각층 사방에 있는 아치형의 작은 창으로 시안 시내의 전망을 감상하며 올라갈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한다.

우리도 일부 건장한 학우들은 이 탑의 7층까지 올라가보는 열의를 보였다.

@ 3일차 (비림 및 문서거리)

중국 4대 고도인 서안시에 있는 비림박물관은 말 그대로 비석이 숲을 이룬 박물관이었다. 이 지역 일대에서 출토된 한 대에서 청나라 까지 석비(石碑)약 3,000여점이 전시 보관중이라 했다. 시대별로 정리된 비석이 숲(林)을 이룬다하여 비림(碑林:베이린)이라 부른다. 마침 방문한 시간에 우리나라 민방위훈련같은 소방훈련을 하고 있었다. 외국에서 보는 소방훈련이라 새롭게 보였으며 안내자의 설명에는 이곳에는 많은 서예가들의 비문이 있고 또 이를 탁본하여 방

문자에게 판매도 한다 하였다. 그리고 경주김씨와 관련된 비석도 있다고 하여 관심이 있었으나 지하에 볼수 없는 장소에 보관중이라 했다는 신라시대 다녀간 신라 왕족의 비문을 말하는 것 같았고 신라 왕족이니 근대에 경주김씨를 칭하는 것 같았다. 비림박물관 인근에는 문서의 거리가 있었다 , 이곳에는 비림관련 서적 및 붓, 탁본,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 3일차 (종로루야경 및 회족거리 야시장)



이어서 우리는 해외 역사탐방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회족거리를 찾았다. 회족은 중국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종교상 이유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대신 양고기와 소고기를 주로 먹는다. 시안에 있는 회족거리(回民街)는 시안만의 독특한 특색이 함께 녹아 있는 유명한 먹거리 골목이다.

이곳에서 파는 300여 가지의 다채로운 먹거리는 회족 전통 문화의 분위기가 깊게 배여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회족거리에서 우리는 양꼬치, 오징어 튀김, 꽃게 튀김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각 조별로 지정된 미션을 수행하는 등 새롭고 남다른 문화에 흠뻑 젖어보았다.

이어서 규모가 어마어마한 덕발장 만두집을 방문하여 만두빚기 체험 학습과 소, 돼지, 닭, 야채 등 16가지 다양한 재료로 만든

만두를 맛보았다. 중국 14대 왕조를 뜻한다는 14가지의 만두를 맛보며 서안의 특산주라는 서봉주와 곁들이니 중국에 온 게 실감났다. 보고 듣고 맡으며 느껴지는 감각들에 더해 혀에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호기심이 현장학습을 더욱 행복하게 하였다.

다만 일정상 시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양광여도대극원 대극장에서 공연한다는 섬서가무쇼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섬서가무쇼는 시안이 위치한 섬서성 소수민족들이 보여주는 당나라 궁녀들의 춤으로. 보지를 못해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진한 색의 조화가 돋보

이고 단원들의 부드러운 몸동작이 아름답게 보이는 가무인 것 같았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모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숙소로 귀환 내일의 여정을 위해 휴식을 취하였다..

@ 4일차 (서안성벽)



아침 출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마지막 답사지인 서안성으로 향하였다. 서안성은 과거 장안성으로 불리던 곳으로 중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장안성은 중국에서 보전하고 있는 건축물 중 가장 완전한 고성 중 하나인 서안성벽. 전체 길이



13.6km, 높이 12m, 폭은 15m로 높고 두터운 고성벽이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성벽은 동서남북의 4개문이 그대로 보전돼 있으며 주변에는 넓고 깊은 호성하가 흐른다.

1982년 7월에는 독특한 풍경의 환성공원을 조성했고, 성 정상



부분에는 조그마한 화원도 여러 개 만들었다. 이에 현재는

공원과 성, 길, 물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역사적인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간

직하게 됐다. 이른 아침이지만 토요일이라 그런지 수많은 학생 탐방객이 성위를 걷고 있

었다. 성벽 외벽 도로에는 우리나라 반짝 시장이 서는 것처럼 이곳에도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사꾼과 고객들이 어우러져 상거래를 하고 있어 흥미로웠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공항으로 향하였다. 오던날 인천공항부터 지척 거리던 비가 다시 항공기에 오르니 창문을 적

시고 있었다. 하늘도 우리의 탐방일정을 알고 도와주는 것 같았다., 갈때보다는 짧은 비행시간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수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을 즐긴 것 같다, 우리는 공항에서 교수님의 그동안 수고했다는 해산의 인사말씀을 경청하고 학우들 서로 작별의 인사를 하며 일상으로의 귀환을 위하여 총총 걸음으로 공항을 떠나는 것으로 21기 동계 해외탐방일정을 무사히 종료하였다.

금번 21기 해외 역사탐방을 마치며 이번 탐방은 내 마음 깊숙이 남아있을 추억으로 느낀다. 다만 중국이라는 남의 나라 역사보다는 만주지역의 우리 독립운동의 아픈 역사나 우즈베크 같은 곳에 있는 동족의 역사 이런곳에 다음 일정이 준비된다면 좀더 우리나라를 알수 있는 해외 역사탐방이 되지 않을까 감히 적어본다.